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3.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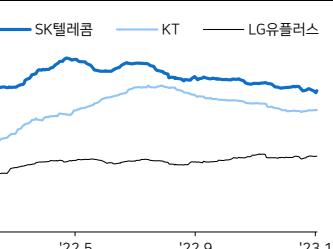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KOSPI	4.9	11.1	9.5	1.3	13.0	9.8	0.9	0.9	2.3	2.4	
통신업종	-0.1	2.9	-3.2	-8.8	7.8	7.2	0.7	0.6	6.6	7.0	
SK텔레콤	2.0	0.9	-4.7	-10.7	11.4	9.3	0.9	0.9	7.1	7.4	
KT	-2.1	5.0	-3.0	-6.0	7.7	7.1	0.6	0.5	5.9	6.3	
LG유플러스	-1.0	2.6	-0.5	-9.3	7.5	6.8	0.6	0.6	5.5	6.0	
AT&T	3.7	8.1	8.0	6.2	7.7	8.2	1.1	1.2	6.1	5.6	
Verizon	1.6	3.5	7.9	-12.0	7.9	8.6	1.9	1.7	6.4	6.7	
T-Mobile	1.1	5.3	-2.8	2.6	71.3	21.6	2.6	2.7	0.0	0.0	
NTT	2.0	2.6	-5.1	1.9	12.3	11.1	1.7	1.5	3.0	3.2	
KDDI	1.4	1.1	-7.8	-5.9	13.6	12.9	1.8	1.7	3.1	3.3	
Softbank	5.3	10.2	2.7	10.5	20.1	16.7	0.9	0.8	0.7	0.7	
China Mobile	3.3	10.9	17.8	14.2	8.3	7.6	0.8	0.8	7.8	9.0	
China Unicom	5.1	16.0	68.4	49.1	8.9	7.8	0.4	0.4	5.5	6.5	
China Telecom	9.0	24.5	35.3	39.3	10.7	9.4	0.7	0.7	6.1	7.3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45.2% (-0.2%p WoW, -0.4%p MoM)

KT 43.2% (+0.0%p WoW, +0.1%p MoM)

LGU+ 38.2% (+0.0%p WoW, +0.1%p MoM)

KT, LGU+ 외국인 순매수 기록

2 업종 코멘트

전자 부동

1월 넷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5.0%p 수익률 기록하며 Underperform

통신 3사 2022년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 금액 1.2조원 육박. 초고령화시대 진입에 따른 부담증가 우려도 존재
2월 예정된 글로벌 전시회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2'에서 망 이용대가 의무화가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

국내 기관은 SKT 순매수, KT, LGU+ 순매도. 외국인은 KT, LGU+ 순매수, SKT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1일(수) T-Mobile, 3일(금) LG유플러스 4Q22 실적발표 예정

비바리풀블리카, 30일(월) 알뜰폰 브랜드 '토스모바일' 공개 예정. 총 4종의 요금제(최소 2.4만원대~최대 5.9만원대)
지난주 Verizon, AT&T 실적발표. AT&T 2023년 capex 240억달러, Verizon 2024년 Capex 170억달러로 감축

과기부, 5G 28GHz 주파수 대역 신규사업자 진입 유도 위한 지원방안 논의 중. 이르면 1월 중 공개될 전망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T-Mobile 4Q22 실적발표
LGU+ 4Q22 실적발표

3 주간 뉴스

▶ 토스모바일 요금제 4종 벗었다..."최대 1만원 캐시백"

(ZDNet Korea)

- 비바리풀블리카, 30일(월) 알뜰폰 브랜드 '토스모바일' 공개 예정. 새 요금제는 총 4종
- 데이터는 7GB~100GB, 요금은 최소 2.4만원대~최대 5.9만원대
- 데이터 7GB를 제외한 요금제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캐시백을 제공하는 게 특징
- ⇒ 토스모바일은 토스와 금융적인 연계는 크지 않을 것이며, 과도한 출혈 경쟁을 지양할 계획이라고 밝힘
- ⇒ 토스 앱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꾸리는 등 토스만의 경험을 강화해 승부를 보겠다는 계획

▶ 구글·넷플 등 '망사용료 분담'... MWC 최대 화두로

(디지털타임스)

- 2021년대비 2022년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 양 23% 증가
- 구글, 넷플릭스 같은 대규모 OTT, 플랫폼 기업의 성장이 트래픽 폭증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
- 2월 예정인 글로벌 전시회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2'에서 망 이용대가 의무화가 핵심 이슈될 것
⇒ EU 집행위원회, 글로벌 빅테크 망 투자 기여 위한 '연결 인프라 법안'에 대한 논의 올해 본격화할 예정
- ⇒ MWC 2023에서 망 이용대가 분담 논의가 불거지면 국내 입법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

▶ KT '디지털 몽골' 도와주고 희토류 받는다

(서울경제)

- KT-몽골 정부, 금융·의료·미디어·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혁신과 희토류 국내 공급을 위한 협력
- 베트남에 이어 몽골 시장에 진출하며 '디지코 3차원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
- 몽골과 맺은 협약은 희토류·디지털 협력. 몽골의 희토류를 국내에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향후 정부 및 국내 산업체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
- ⇒ 그 외에도 BC카드를 통한 금융 분야, 하나로의료재단과 함께 의료 부문, 국가 차원 컨설팅 등 협의 진행

▶ 5G 28GHz 신사업자 지원안 공개 임박...KT·LGU+ 빈자리 매울까

(아이뉴스24)

- 정부, 5G 28GHz 주파수 대역 신규사업자 지원방안 이르면 1월 중 공개할 전망
- 28GHz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고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
- 지원안 공개 시기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이달 중 결론 내겠다는 기준 입장 유지
⇒ 이번 28GHz 신규사업자 지원방안에 앵커주파수 개방 여부가 포함될지 관심사
- ⇒ 경우에 따라 신호제어용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 등으로의 활용이 허용될 수 있음

▶ 통신업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연결음

(ZDNet Korea)

- 통신업계, 5G 통신 인프라, 인공지능(AI) 기술 역량을 발판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확장 나서
- 통신 3사는 AI·디지털 플랫폼·콘텐츠 등 비통신 사업을 추진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
- 그 중 하나가 원격 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로, 해당 사업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전략
⇒ 비교적 규제 장벽이 낮은 해외 국가에 협력 법인을 설립하는 등 서비스 상용화에 속도 내고 있음
- ⇒ 전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3년 3천억 달러에서 2025년 5천억 달러로 성장 전망

▶ 통신3사 취약계층 요금 감면 1.2조 육박

(전자신문)

- 2022년 통신 3사의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 금액이 1.2조원에 육박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사회적 기여 효과를 강조
-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금액 규모는 2021년 약 1조500억원에서 10% 이상 증가한 수준
⇒ 미국, '인터넷 공정(FAIR)기여법' 통해 구글, 넷플릭스 등이 보편서비스기금에 기여하는 방안 추구
⇒ 유럽연합, 연결 인프라 방안 등 통해 빅테크의 보편 기금 참여 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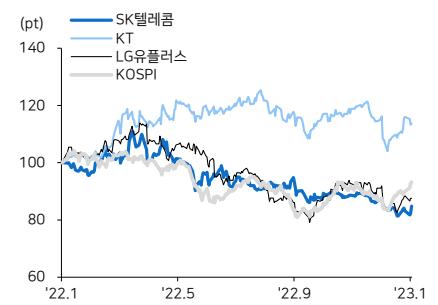
4 주요 지표

(집약달력)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한국	SK텔레콤	47,850	8.5	14.0	14.5	1.3	1.4	0.7	0.9	4.4	4.5	3.8	3.7	7.7	9.2
	KT	35,500	7.5	20.8	21.5	1.4	1.5	1.0	1.0	4.4	4.6	3.1	3.0	7.6	7.8
	LG유플러스	11,340	4.0	11.3	11.6	0.8	0.9	0.5	0.6	2.8	2.9	3.2	3.1	8.3	8.7
미국	AT&T	20.0	142.2	126.0	122.8	22.8	24.1	19.2	18.0	41.8	42.6	6.8	6.7	13.3	15.9
	Verizon	40.6	170.7	136.7	137.7	30.8	30.7	20.8	19.9	47.9	47.9	6.7	6.7	24.4	20.9
	T-Mobile	146.7	182.6	80.0	82.6	6.9	14.4	2.5	8.2	27.5	29.3	9.3	8.7	3.8	13.0
일본	NTT	3,878	108.1	93.4	98.4	13.6	14.1	8.7	9.4	25.2	26.1	7.1	6.8	14.6	14.4
	KDDI	4,039	71.6	41.6	43.0	8.1	8.4	5.1	5.3	13.9	13.7	5.7	5.8	13.8	13.5
	Softbank	6,191	82.1	47.3	50.2	-1.4	7.1	4.4	5.3	4.4	14.0	45.8	14.4	4.7	5.5
중국	China Mobile	56.7	158.5	138.2	148.9	19.4	21.2	18.7	20.2	48.9	52.0	2.2	2.1	10.2	10.6
	China Unicom	5.6	21.8	51.8	54.8	2.1	2.5	2.5	2.9	14.7	15.3	1.1	1.1	5.0	5.5
	China Telecom	3.8	62.1	71.2	77.2	5.2	6.0	4.2	4.8	19.4	20.8	3.1	2.9	6.5	7.1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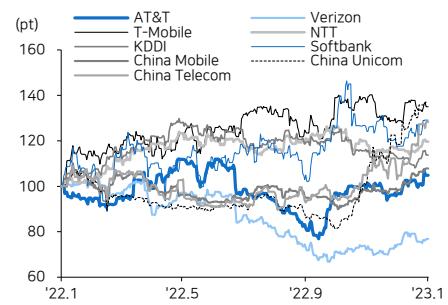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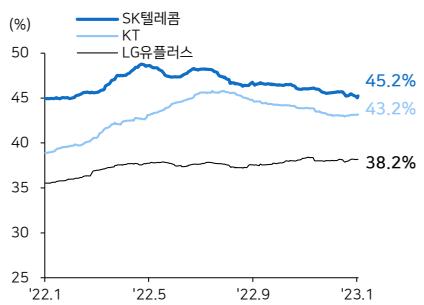
자료: FnGuide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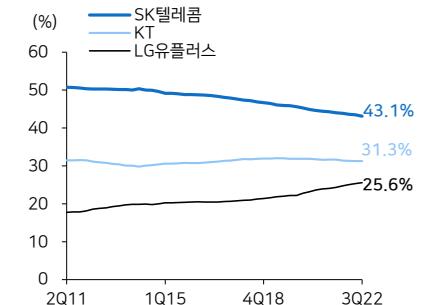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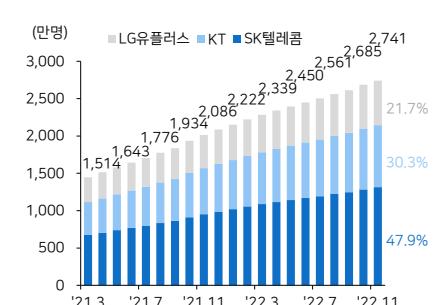
자료: FnGuide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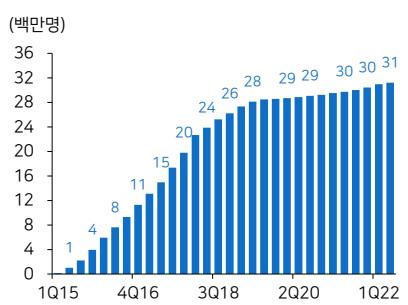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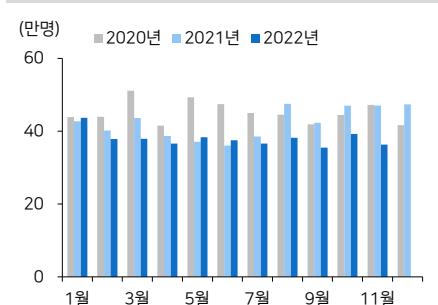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회원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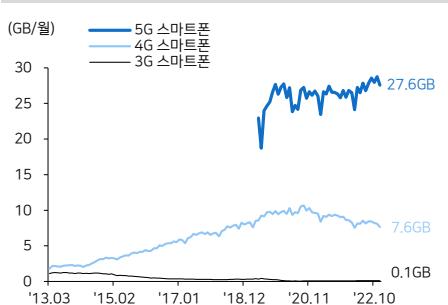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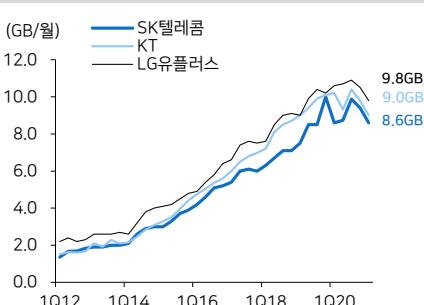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